

전남도, 미래 교통수단 '드론' 산업 선점 나서

'테스트베드 조성 연구용역'... '고흥' 최적지 제시 2025년 드론택시 상용화 목표 산업 육성에 힘써

전라남도는 지난 1일 미래 교통수단 시장을 선점·육성하기 위해 고흥군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차세대 개인 비행체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드론산업 선점에 나섰다.

영상으로 진행된 이번 최종 보고회에는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장, 고흥군 부군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대거 함께했다.

총괄 수행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미래비행체 개발현황 및 국내외 비행시험 인프라 분석을 통해 종합 테스트베드 조성은 전남 고흥이 최적지"고 언급하고, 필요예산과 경제적 파급효과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신장선 순천대 교수와 강원혁(㈜나다 대표 등 산학연 전문가들은 기술개발 속도에 따른 미래비행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라남도과 고흥군은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 도심항공 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기획·착수했으며 지난 4월부터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 교통

(K-UAM)로드맵을 발표하고 전남 협의체를 구성해 기준을 마련하면서 실증행사를 개최하는 등 오는 2025년 드론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등 국내 유수기업들이 개인비행체 시제품을 해외에서 제작중에 있어 시험평가·실증을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고흥은 전국 최대 비행시험 공

역(직경 22km)을 보유하고 있고 항공센터와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가 들어서있다. 또 내년 국가종합 비행성능 시험장과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등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좋은 여건을 갖췄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차세대 드론산업 '종합 테스트베드 구축'과 함께 5G기반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사업, 산업용 드론 기업육성을 위한 실증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또한 내년 정부예산에 'eVTOL 자율비행 핵심기술 및 장비구축 사업'을 반영시켜 예산 심사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새

로운 국책사업을 추가로 발굴·전개할 계획이다.

민일기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전남의 경우 실증여건은 우위에 있으나 접근이 어려워 기업유치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이 쉽지는 않다"며 "용역 산출물을 국비 확보에 적극 활용하고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구축해 차세대 개인비행체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국토부에서 12월 중 지정용 목표로 추진중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및 K-UAM 그랜드 챌린지 테스트베드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환기자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중균 증소업체 무상 보급 세계김치연구소가 김치의 맛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김치중균'을 자체 개발해 전국 23개 김치제조업체에 무상 보급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김치연구소 제공)

동구, '코로나19 차단' 공공체육시설 임시휴관

광주 동구는 코로나19 감염 차단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2일부터 관내 모든 공공체육시설이 임시휴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휴관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 등 지역감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함이다.

해당시설은 ▲동구국민체육센터 ▲용산생활체육공원(축구장·정구장·배드민턴·게이트볼장) ▲동구문화센터 ▲동구다목적체육관 ▲게이트볼장 등 11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휴관한다.

서구,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 '서구톡톡'개시

광주 서구가 정책 전 과정에 주민참여가 가능케 하는 온라인 쌍방향 소통 창구 서구 온라인 플랫폼 '서구톡톡'을 개시했다.

서구톡톡은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제안하면서 많은 공감을 받은 제안이 서구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쌍방향 소통체계다.

제안에 시민 30명이상이 공감하면,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정책 가능성 검토를 거쳐 제안된 정책의 실행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특히, 서구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설문투표, 서구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접수 등의 메뉴는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 오늘 수능 시험장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광주 남구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학 수능능력 시험날인 3일 오전부터 시험 종료때까지 관내 수험장 10곳 주변에서 교통 소통 등 특별대책을 추진 하며, 시험 당일 현장에 직원 60명을 투입해 시험장 주변에 대한 교통질서 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시험장 주변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및 견인하고,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진·출입이 통제되며 시험장 반경 2km 이내 간선도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북구, 산불 방지 종합대책 추진

광주 북구가 본격적인 산불 예방활동에 나섰다.

북구는 오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가을과 겨울철 맑고 건조한 날씨가 많아 산불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전점검과 홍보활동 등을 통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 순찰기동반,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산불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병원 지원

광주 광산구가 오는 27일 '호흡기 전담 클리닉'설치를 신청한 병원 5곳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광산구의 시민면역력 증진 프로젝트의 하나로,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호흡기 질환 증상자와 다른 방문객의 병원 동선을 완벽 분리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미 보건복지부도 인구 10만명당 1곳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권장한 바 있다.

이달 초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신청한 병원은 KS병원, 하남성심병원, 광주수안병원, 광산수안미래아동병원, 광산하나아동병원 5곳으로, 광산구는 이들 병원에 총 5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5개 병원은 12월말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에 나선다.

광산구는 이후 병원 현장 실사를 거쳐 구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한다.

임형택기자

광주시 청년예산 감축, 반발확산...시의회에서 부활하나

시민단체·정치권 반발에 시·의회 일부 예산 반영 조율중

광주시의 내년도 청년 정책예산이 대폭 감축됐다. 광주시의회는 예산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2일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정책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광주시의 2021년 '청년예산'은 307억원으로 2020년 458억원에 비해 151억원(33%) 감축됐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사업은 올해 94억원에서 54억원이 감축된 40억원만 반영됐다.

또 청년역량 강화 및 자립지원 사업비도 올해 41억원에서 6억원이 감소한 35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정책네트워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이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청년에게 코로나19 위기는 훨씬 크고 깊지만, 광주시는 이런 문제에 긴급한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할 망정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예산을 줄이기로 결정했다"면서 "청년정책이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

는 구직청년교통비지원사업, 청년드림수당, 광주청년드림은행사업이 삭감됐고 이용섭 시장의 공약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까지도 절반 이상 삭감됐다"면서 "청년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광주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시 청년예산 33% 삭감은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저임금 근로자 등 청년들을 위한 민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청년들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다가올 미래는 더욱 두렵다"면서 "시와 시의회는 청년예산삭감에 대한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줄 것"을 호소했다.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광주시의회가 감소된 예산을 다시 반영할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일부 예산의 부활을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급한 청년예산 일부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재반영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입은 근무 시간에 어가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독심에서 제안한 슬로컨셉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도	보험료	급여	비율
2011년	240,833원	428,111원	1.77배
2012년	125,531원	220,811원	1.77배
2013년	79,147원	139,811원	1.77배
2014년	48,103원	85,311원	1.77배
2015년	26,697원	47,311원	1.77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